

# Mitsubishi, 자동차부품 구매 상담

## 12월 중순 KOTRA에서 역견본시 ... 부품 96개 구매 가능성 타진

세계 최초의 전기자동차를 양산한 일본 Mitsubishi Motors가 12월 중순 한국에서 대대적인 부품조달 행사를 개최한다.

12월 16-17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리는 Mitsubishi의 부품조달 행사는 수입을 희망하는 부품을 한국기업들에게 전시하고 구매상담을 벌이는 역견본시 형태로 진행된다.

Mitsubishi가 전시할 부품은 모두 96개로 전기자동차 부품 41개, 일반자동차 부품 55개로 알려졌다.

행사는 9월 KOTRA가 Mitsubishi를 방문해 개최했던 자동차부품 전시 상담회에서 한국산 부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확인한 Mitsubishi 경영진의 지시로 성사됐다.

Mitsubishi는 2011년 초 비용절감을 위해 신설된 코스트개혁총괄실장을 비롯한 구매담당자들과 3개의 협력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구매단을 서울에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OTRA의 정혁 일본사업단장은 "Mitsubishi가 전례 없이 추진하는 해외조달 행사로 성과가 좋으면 한국에 독자적인 조달거점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Mitsubishi Motors는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i-MiEV) 양산에 성공했으며 최근 주문량 증가로 2012년부터 연간 3만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있다.

행사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3460-7868)

<화학저널 2010/11/25>